



삶은 복잡합니다

건강한 자연환경은
복잡해서 정리가
어렵습니다.

물에 잠긴 잘라진 나무는
비버가 일한 곳입니다.
지저분하게 보일수도
있지만 생명으로 가득 차
있습니다. 나무에 숨겨져
있는 삶과 죽음의 안에서
성장하고 회복; 나무 껍질
아래 곤충이 만든 복잡한
모양들과, 섬세한 이끼에
대해 생각해 봅니다.

이러한 환경에서
살아있는 복잡함은
자연의 기술자이고
예술가인 비버가 만든
환경에서
시작되었습니다.

함께 해요!

쓰러진 통나무를
찾아봅니다. 지저분하게
보이지만 더 자세히
들여다보면 아름다운
풍경을 만드는 생명이
보입니다.

Ellie Cho 옮김

Alan Lam 이미지 제공

